



Esedra Collection

EMPORIO  ARMANI

SWISS MADE

DESIGNED IN MILAN. CRAFTED IN SWITZERLAND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7 vol.163



TANK LOUIS CARTIER WATCH



BVLGARI

R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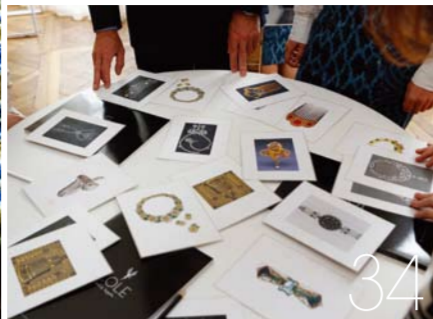
DIVAS' DREAM
BVLGARI.COM #BULGARIMAGNIFICENTTALES



BURBERRY



32



34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이한 까르띠에의 전설적인 탱크 워치 컬렉션 중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탱크 루이 까르띠에 골드 모델이다. 유례없는 여정을 거쳐온 이 우아한 시계는 탱크 루이 까르띠에와 탱크 아메리칸, 탱크 프랑세즈 등 세 가지 대표 모델을 통해, 세기를 관통하고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동시에 새롭고 현대적인 삶의 방식을 창조함으로써, 전 시대의 자유 정신을 상징하는 스타일과 세련미를 보여준다. 문의 1566-7277



24



10

- 14 **집과 달아나는 호텔 비즈니스의 미학** '이동'의 시대답게 전 세계적으로 여행·관광 산업은 무럭무럭 자란다. 최근 유럽에는 '내 집 같은' 공간을 말로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개조한 세련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편리한 시설과 개성, 게다가 더러 걱정성도 갖춘 이런 유형의 숙박업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경제 모델, 그리고 모든 게 매끄러운 호텔과 견줘도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인다.
- 18 **BE MY LOVE** 연인 간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증표이자 사랑의 메신저로 자리매김해온 주얼리 매장에서 낭만적인 프러포즈를 위한 아이코닉 컬렉션을 선보인다.
- 20 **AUTUMN BREEZE**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풍요로운 가을에 어울리는 드레스 4선.
- 22 **LEGENDARY ICON** 수많은 명사의 사랑을 받으며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이한 탱크 워치. 이 매력적인 직사각형 시계는 '탱크는 탱크다(Tank is a Tank)'라는 표현만으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무언의 의미가 함축된 코드이자 영원한 아이콘이다.
- 24 **AUTUMN SONATA** 가을 서정이 진하게 느껴지는 이자벨미랑의 뉴 럭셔리 보헤미안 룩, 더욱 값진 눈빛이 매력적인 애배우 김효진이 울가울의 뮤즈로 선택됐다.
- 32 **FATAL TEMPTATION** 유혹과 부활, 변형을 상징하며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뱀은 1백12년 전통을 지닌 불가리에도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의 대담한 창의성을 대변하는 진정한 아이콘이다. 이런 뱀 모티프가 고대부터 미술, 디자인, 패션 등에 미친 다각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여정이 아시아의 주요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펼쳐졌다. 뱀의 풍부한 상징성을 불기리 특유의 우아하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특별전, <세르펜티 폼(Serpenti Form)>이 바로 그것이다.
- 33 **MODERN SQUARE** 발리의 이카이브에서 깨낸 온 네모난 버클 장식의 '자넬(Janelle)' 컬렉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자넬 패밀리. 이번 시즌 키 트렌드인 레트로 무드와도 잘 어울리는 자넬 컬렉션은 1960년대 감성을 담아 선보이는, 뒷굽을 접었다 펼 수 있도록 디자인한 바부수 스타일의 슈즈와 클라치, 그리고 토트백까지 다양하게 전개된다.
- 34 **SCHOOL OF JEWELRY ARTS** 하이엔드 주얼리의 역사와 세공 노하우, 아름다운 비밀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오픈했다. 바로 반클리프 아펠에서 후원하는 레플 주얼리 스쿨. 파리에 본교를 둔 이 주얼리 학교가 국제적인 도시인 홍콩에서 벌써 세 번째 교육 과정을 열었다. 이 독보적인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가 홍콩을 찾았다.
- 35 **MAKE IDEAL SKIN** 고가의 하이엔드 코스메틱을 사용하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기초 라인부터 되잡아볼 필요가 있다. 세안 후 가장 첫 단계에 에멀션과 화장수를 발라 피부부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코스메 데코르테의 신개념 스킨케어 방식은 기존 당신이 생각하던 뷰티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 36 **EDITOR'S PICK** 가을의 서막을 열어줄,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추천하는 뷰티 신제품.

Style 조선일보

Issue.163 October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정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원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골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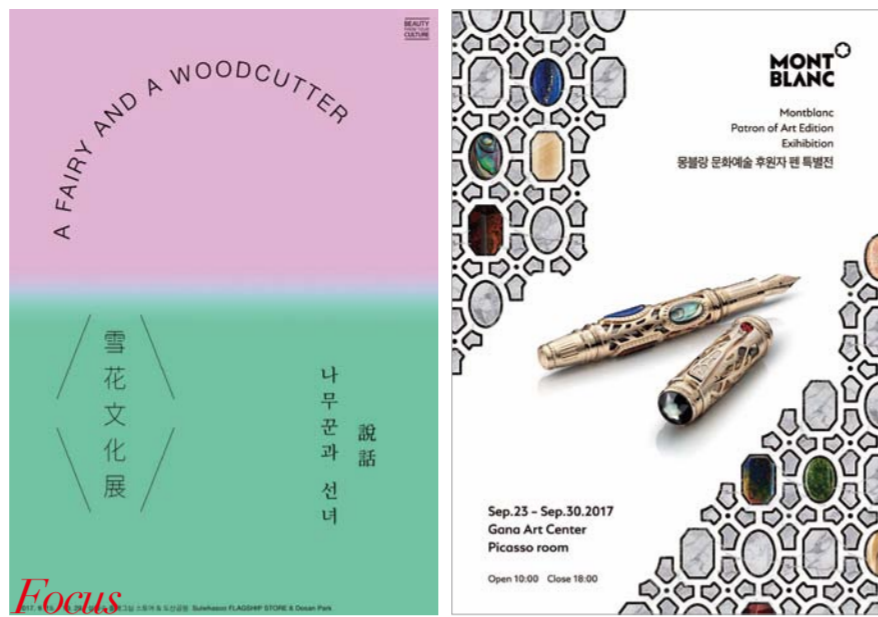
FENDI



Jewel LITTLE STARS

네크라인을 비추는
우아한 반짝임, 스몰 팬던트 네크리스.

(왼쪽부터) 뱀의 비늘에서 모티브를 얻은 텍스처로 크로스 모티브를 완성한 세퍼테르 네크리스 2백만원대 **불가리**, 자물쇠 디자인이 유니크한 티파니 다이아몬드 하드웨어 락 팬던트 3백만원대 **티파니**, 진주로 음표를 표현한 벨런스 노트 네크리스 3백20만원대 **타사키**, 그린 일라카이트로 수국을 표현한 호텐시아 에반 팬던트 3백만원대 **쇼페**,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자스트 앵글루 모티브의 미니 네크리스 버전 7백60만원대 **카르띠에**, 에디터 **베르빈**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문화와 예술을 후원하다

다양한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을 펼치는 브랜드의 노력이 예술계 전천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대미술에 큰 지원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긴 스토리를 지닌 하이엔드 브랜드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지속되어왔고, 그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년간 한국의 전통문화를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알리려던 노력은 올해 <설화(說話): Once Upon a Time - 나무꾼과 산녀>를 주제로 한 전시를 오는 10월 29일까지 설화수 도산공원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개최한다. 무형문화재와 현대 작가를 통해 전통 설화 나무꾼과 산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선보이는 것.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내 작가 11명과 전통 장인이 함께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26회를 맞은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대상 역시 역대 에디션 중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를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 문화 예술 후원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나아트센터의 소장 이호재 화가와 함께 기획했다. 9월 30일까지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17세기 로마 바로크 예술의 열렬한 후원자이자 세계적인 아트 컬렉터였던 시피오네 보르게세(Scipione Borghese)에게 영감을 얻어 제작한 '시피오네 보르게세 에디션'을 포함해, 그동안 한자리에서 보기 힘들었던 역대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 에디션 한정 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또 10월 15일까지 한국 미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가나아트센터의 <同行: 가나아트와 함께한 30년>도 개최하게 더 의미가 깊다. 에디터 **베르빈**



Beauty HAUTE SCENT

패션 브랜드가 지닌 미학과 DNA를 고유의 향에 담아냈다.
패션 하우스에서 선보인 감각적인 패키지와 보틀 디자인이 돋보이는 향수 컬렉션.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귀여운 헛과 스카프를 돌아본 것처럼 보틀이 돋보이는 **에르메스 트윙클 데르메스**. 젊은 현대 여성들의 자유 정신을 표현한 이 향수는 에르메스 조향사 크리스틴 아젤이 에르메스 까페 스킵으로 즐겁게 장난치는 듯한 여성들의 신선한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시켰다. 진저와 투베로즈, 샌들우드를 영한 감성으로 트윙클데, 보다 젊고 활기찬 현대 여성을 위한 것85ml 1829원 원, 구찌의 수정 알레산드로 미갈레의 손길이 닿은 첫 번째 향수 **구찌 블룸**. 여성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마음을 꽃피울 수 있다고 표현한 그의 말을 실현하자, 마스터 조향사 알베르토 모랄레스가 불꽃이라는 이름 그대로 꽃을 피우는 듯한 향을 만들었다. 인도에서 수확한 천연 월향과 재스민을 블렌딩해, 풍성한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향으로 완성했다(100ml 1829원), **켄조 월드 드 오드 파퓰러**는 브랜드 시그니처 모티브를 할 수 있는 눈 모양을 형상화한 개성 넘치는 보틀 디자인으로, 켄조의 아티스틱 디렉터 카를 뤼케르 레온이 캔버스에서 처음 만든 향수다. 어느 순간에도 영감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성을 위한 향으로, 실에 활짝 피어 나뉘는 로즈 베리 향을 메인으로, 피오리와 재스민의 플로럴 향기가 지배적이다(30ml 822원), 시공을 향으로 표현하면 어떤 향기가 날까? **디올 미스 디올 오드 파퓰러**는 디올의 파퓰러 프랑수아 드미아가 사랑의 향기를 표현한 향수로, 관능적인 플로럴 계열의 향이다. 디올 향수의 메인 원료인 그라스 로즈에 블루드 오렌지와 만다린, 칼라브리아산 베르가모트 에센스를 추가해 풍성한 꽃의 향을 만끽할 수 있다(100ml, 1429원), **샤넬 가브리엘 사블은** 사블은 15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향수. 피드모어, 코코 등 그녀를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개지만, 가브리엘은 진정한 그녀 자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시방향사블은 여성성을 표현한 태양 빛을 머금은 플로럴 향수로, 일렁일렁 재스민, 오렌지 블라썸에 그라스 투베로즈를 추가해 여성스럽고 관능적인 오라가 느껴진다(100ml 2322원), 에디터 **이재현**

INSIGHT

편안부가 염상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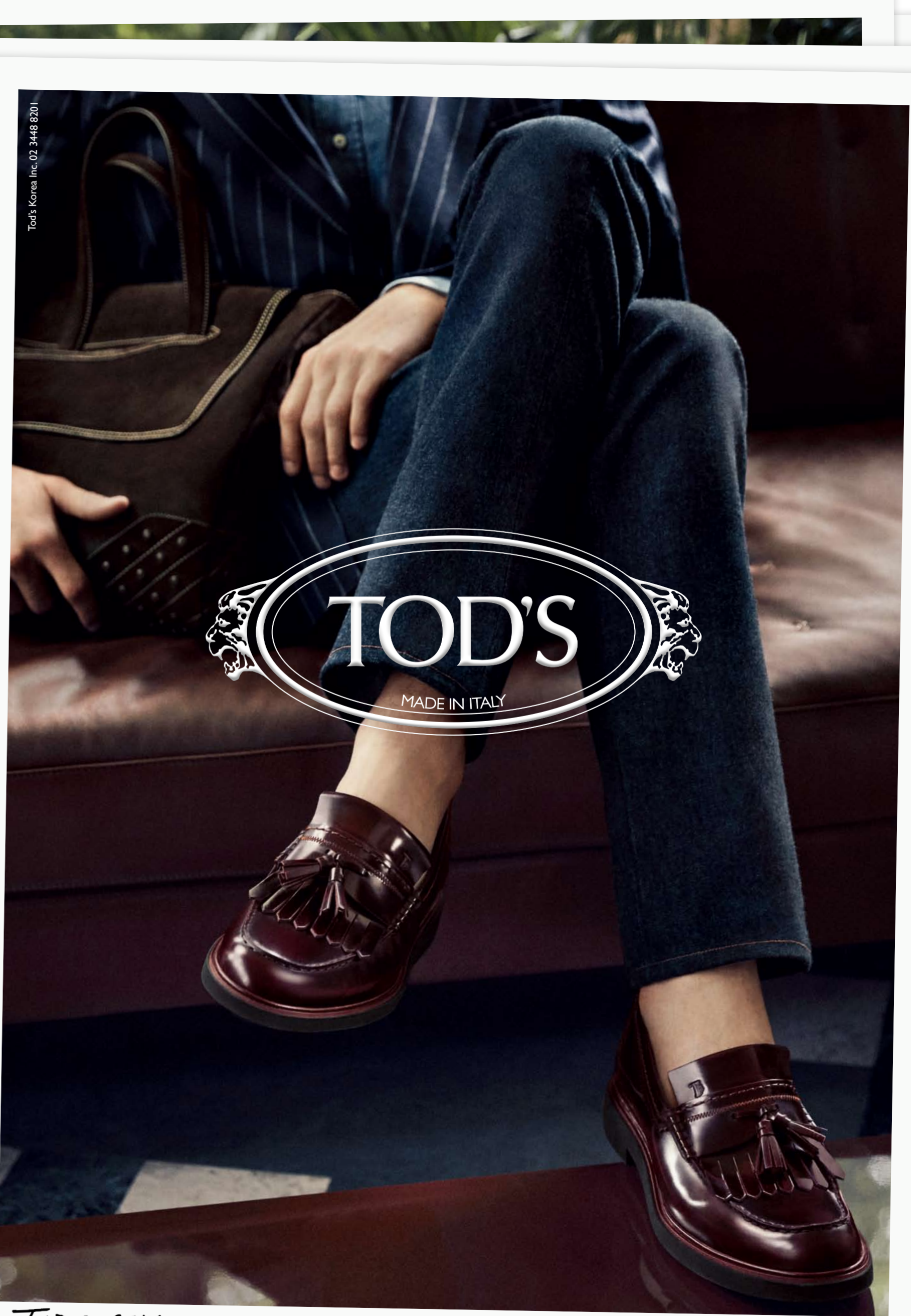
Living 여행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쇼핑 공간, 쌤사이트 라이프 이즈 저니 스토어

여행 인구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공간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행용 물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면, 쌤사이트가 롯데백화점과 손잡고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쇼핑 전문 매장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제일 먼저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에 선보인 Life's Journey(라이프 이즈 저니) 스토어라는 이름의 원스톱 솔루션 복합 매장이었다. 1백50평 규모의 이 매장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을 이루르는 30개 넘는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여행용 가방 브랜드를 비롯해 패션·뷰티 아이템, 각종 휴대용 배터리, 어댑터 등 IT 기기 등 다채로운 여행용품을 한곳에서 접할 수 있다. 쌤사이트, 리본, 하트만, 그레고리 같은 다양한 여행용 캐리어와 백팩 등을 한데 모아놓은 '하우스 오브 쌤사이트(House of Samsonite)', 여행 액세서리 존(Travel Acc. Zone), 여행 패션 존(Travel Fashion Zone), 여행 키트 존(Travel Kit Zone), IT/모바일 존 등 상품·서비스 유형별 색인으로 나뉘져 있다. 쌤사이트 그룹 내의 브랜드 말고도 모노폴리 트래블(Monopoly Travel), 인디고(Indigo), 알라피 디자인(Alife Design) 등 감각이 돋보이는 각종 국내 소품 브랜드도 엄선돼 있다. 여행사 롯데UTB도 입점해 완벽한 여행 상담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 핸드드립 커피 전문 카페인 카페 클레사피아가 함께 자리해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다. 라이프 이즈 저니 스토어 2호점은 롯데백화점 부산점에 들어섰다. 에디터 **고성현**



Exhibition 핀란드 독립 1백주년 기념 특별전, <무민 원화전> 한국 상륙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 '무민(Moomin)'의 70년 넘는 연대기를 이루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오는 11월 26일까지 개최되는 '무민 원화전'. 무민은 1945년 토베 안손(Tove Marika Jansson)이 직접 글을 쓰고 삽화를 그린 '무민 가족과 대홍수'라는 소설 책을 바탕으로 그림책, 민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는데, 핀란드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로 성장했음뿐더러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민의 고향인 핀란드의 독립 1백 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캐릭터를 탄생시킨 안손이 생전 직접 그린 원화부터 무민 제작사가 소장한 미공개 작품까지 3백50점의 원화 작품을 시가별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총 8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민 라이브러리, 무민 하우스 등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관람료는 성인 1만3천원, 중고생 1만1천원, 어린이 9천원, 홈페이지(www.moominart.com) 참조. 에디터 **고성현**



TOD'S
MADE IN ITALY

TODS.COM



for him
Selection

가을에 빼놓아서는 안 될 트렌치코트를 포함한 가죽 구두와 모자, 럭셔리한 액세서리까지. 클래식 무드로 무장한, 남성을 위한 셀렉션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구두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핏을 제1로! 핏50는, 트래닝 백, 43x32cm, 59% (9만 원) 벨루티.

타이가 가죽 디테일이 돋보이는 모노그램 렌즈 선글라스 90만원대 루이 비통.

원스텝을 넘어, 2015년 가을 시즌에 맞춰가자! 벨루티.

자수 포인트의 벨벳 슬리퍼 가격 미정 플레멘가버나.

해이트 컬러 나뭇잎 플라센 보틀에 고급스러운 유니스 나추려한 감성의 유니스 시트리스 유아 향수, 125ml, 11만3천 원 존바비토스.

블루, 바건디 컬러 스트라이프 수트 4백50만원대, 셔츠 가격 미정, 블루 타이 28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자노 제나.

올 시즌, 스테이코인더블어간스웨이드 코트 모두 가격 미정 원비토레 페라가모.

블루 컬러 악어가죽 소재 반지갑 2백만원대 플롬보 비아 엘라스피가.

브라운 악어가죽 소재의 장갑 65만원 플포드.

악어가죽 소재의 레이스업 슈즈 2천4백30만원 벨루티.

왕복왕 사그라치 키노스 링크 41만 원대 웅플랑.

불가리 워치의 상징적인 팔각형 케이스 특유의 견고함이 느껴지는 옥토피니시모 오토매틱 워치 1천5백만원대 불가리.

블가리 02-2056-0171
존바비토스 02-3443-1805
플롬보 비아 엘라스피가 02-511-2129
벨루티 02-547-1895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 02-542-6622
살비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플포드 02-6905-3534
토즈 02-3438-6008
웅플랑 1670-4810
플레멘가버나 02-3444-0077
부세론 070-7500-7282
카르띠에 1566-7277
에르메네자노 제나 02-3453-2287

퀴트르 레다이트 에디션 링 가격 미정 부세론.

브라시드 메탈 보드에 코트 피니싱 디테일, 그리고 카본스 컷 블루 레진으로 포인트를 준 산토스 투링 드 플레멘가버나 제나.

스타일리스트 유희영
어시스턴트 이세영, 예타, 이아연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C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G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2230-12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집과 닮아가는 호텔 비즈니스의 미학

블황이니 어찌니 해도 '이동의 시대'답게 전 세계적으로 여행·관광 산업은 무럭무럭 자라난다. 전 세계 해외 여행자 수는 2005년 5억2천8백만 명에서 10년 만에 2배가 넘는 11억9천만 명으로 경증 뛰었고, 오는 2030년에는 18억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tastista 참고). 가장 많은 해외여행자들이 찾는 지역은 유럽. 최근 유럽에는 '내 집 같은' 공간을 말로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에 집을 개조한 세련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편리한 시설과 개성, 게다가 더러 진정성도 갖춘 이런 유형의 숙박업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경제 모델, 그리고 모든 게 매끄러운 호텔과 견줘도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인다.

"낮선 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시간과의 만남, 이것이 호텔의 존재 이유다.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서비스가 담긴 설계의 산물인 호텔 게스트 룸을 찾아 스케치하는 여행을 앞으로도 절대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우라 가즈야의 <여행의 공간> 중에서**

일본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우라 가즈야는 지구촌을 누비면서 자신이 머문 호텔방 구석구석을 재보고 이모저모를 스케치하는 취미를 오랫동안 지녀온 재미난 탐험가다. 신히 여행을 떠난 첫날밤에도 호텔 방을 실측하느라 아내(당시에는 '신부'였던)더러 줄자 끝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그는 자신에게 여행이란 '게스트 룸을 측량하고 그리는, 말하자면 호텔 탐험의 여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호텔 객실을 가리켜 '인간이라는 자연을 감싸는 공간'이라는 멋진 정의를 내렸다. 호텔이란 태생적으로 '여행자의 숙소', 다시 말해 이방인이 하룻밤을 보내는 편안한 공간으로 고려됐기 때문에 객실은 휴먼 스케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호텔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인간의 외로움을 한껏 증폭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냉기만 철철 흐르는 차갑기 이를 데 없는 객실도 있고, 아주 화려하고 근사하지만 웬지 쓸쓸한 분위기의 공간이 있는가 하면, 소박한 편이어서도 청결하고 따스한 느낌의 인상 좋은 방도 더러 만날 수 있다. 사실 호텔 자체가 아무리 쾌적한 시설과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췄다고 해도 낯선 내용과 분위기를 풍기고, 그 공간의 구조나 동선이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 애초에 내 집, 내 공간으로 지은 게 아니므로 나 자신이나 가족의 손길과 정이 스며들어 있지 않아서다.

초호화에서 부티크 콘셉트, 게스트하우스까지, 집을 호텔로 개조하기 열풍

그렇지만 웬지 모르게 더 인력한 호텔은 있다. 초호화 호텔든 트레디셔널 부티크 호텔이든,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텔급 숙소든 '별 등급'에 따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보다 포근하게 사로잡는 공간이 있기 마련이다. 우라 가즈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심'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듯하다. 그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쉬 수 있는 호텔을 발견하면 마치 보물이라도 손에 쥘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아주와 이동이' 키워드인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여행이나 출장은 익숙한 일이고,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일상의 일부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호텔도 단순히 잠만 청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히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는 여행자들이 많아졌다. 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등을 비롯한 숙박업이 발달할 거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그런 외중에 요즘 지구촌 호텔 풍경을 보노라면 하룻밤이라도

덜 낯설게 보낼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낯선 곳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제공하겠다는 서비스 모토는 유행어처럼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이에 실제 집을 개조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로 변신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 많고, 건축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에서는 최근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고령화 시대의 '이모작 비즈니스'로도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 "물론 그냥 월세를 쟁기는 식으로 임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면 수입이 더 쏠쏠한 경우가 많고, 나름 직업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 재미도 있어서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만난 한 상인은 소유한 건물 중 일부를 작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로 변신시키는 이들이 점점 더 눈에 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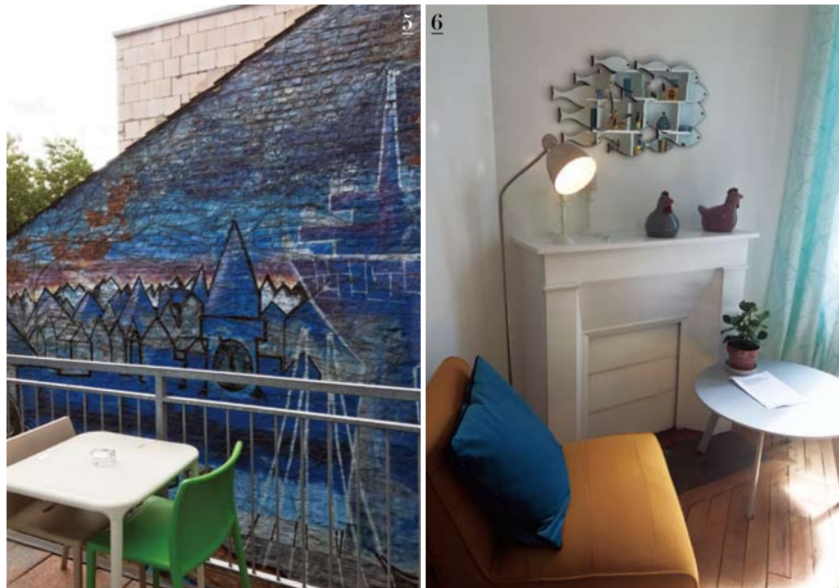
궁전도 누군가의 집이었다, '팰리스 호텔' 인기

물론 이런 주거용 공간을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다. 유럽에서 고성을 개조해 호텔로 운영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고, 인도에서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뜻하는 마하라자가 살던 집, 그러니까 궁전을 호텔로 개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혹은 자신은 반을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호텔로 내주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에 있는 우다이푸르(Udaipur)의 피촐라 호수(Lake Pichola) 한복판에 떠 있는 타지 레이크 팰리스(Taj Lake Palace), '블루 시티(Blue City)'로 불리는 조드푸르(Jodhpur)에 자리 잡은 우마이드 바한 팰리스(Umaid Bhawan Palace) 등이 그렇다. 조드푸르의 우마이드 바한은 2016년 한 유명 여행 사이트의 이용객들이 선정한 최고 호텔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물론 이런 슈퍼 럭셔리 유형의 경우에는 왕족이 살던 궁전이었으니 오죽 좋으랴,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열대나 사막의 호화롭고 이색적인 리조트와 대도시의 세련되기 그지없는 호텔도 맹렬히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었다. 정월, 기둥, 돌 하나까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취나 누군가 거주했던 배경과 얽힌 온갖 인간적인 스토리는 그것이 커다란 궁전이든 아담한 별장이든 오두막이든 독특한 매력을 더할 수밖에 없다.

4년 전 문을 연 이만 베니스(Aman Venice)는 그 스토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호텔이다. 세계적인 리조트 브랜드 아만이 선택한 베니스의 보금자리는 대운하(Grand Canal)에 자리한 팔라초 파파도폴리(Palazzo Papadopoli). 최초 설립 연도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저택은 아만이란 브랜드를 달고 호텔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유주인 파파도폴



1 베를린 미테(Mitte) 지역의 명소 고리키 아파트먼트(Gorki Apartments). 1백 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환골탈태시킨 사례. 2, 3 고리키의 36개 아파트는 구조와 인테리어가 자타타 다르면 공통적으로 높은 천장, 편모하고 예쁜 주방과 욕조를 갖추고 있다. 4 독일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 올블 문을 연 B-보딩하우스(B-Boardinghouse). 역시 1914년에 지은 주거 공간을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반영한 현대식 숙소로 변신시켰다. 세프 출신 주인장의 맛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다. 5 아담한 빌딩을 둔 B-보딩하우스의 한 객실. 그랜드마로 가득한 이웃집 탐방이 보인다. 6 파리의 가장위를 새로 단장해 인상 좋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인 스위트 룸 15(Sweet Room 15). 7 16세기에 처음 지은 대저택을 호텔로 탈바꿈시킨 이만 베니스(Aman Venice)의 루프톱 통풍. 아직도 소유주인 파파도폴리(Papadopoli) 가문의 일원이 살고 있다.



리 가문의 일원이 살고 있다. 호텔에 머무는 손님들도 운하 쪽 반대편에서 걸어서 드나들 때는 고풍스러운 대문 앞에서 '별을 누르고 들어간다. 베네치아 화가의 전통을 이은 프레스코의 대가 잠바티스타 티에폴로(Giambattista Tiepolo)가 직접 벽화를 그린 객실, 황홀할 만큼 근사한 서재, 1571년 레판토 전투에서 유래한 커다란 유리 전등 등을 볼 수 있는 아만 베니스는 집의 골격이나 품격을 해치지 않고 개조한 만큼 객실 수(24개) 자체가 많지 않고 베니스에서는 드물게 아파르토를 2개 거느리고 있다. 산마르코 광장, 리알토 다리 같은 명소들과 멀지 않지만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에 위치해 도심 속 '명운함'을 제대로 보여준다. 이런 특장점이 작용했을까, 영화배우 조니 클루니가 하니문 장소로 택했다.

보다 더 '내 집처럼(homelike)', 굳이 '호텔'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개 집을 개조한 숙소는 같은 가격대의 호텔보다는 면적이 넓고 부엌이나 거실이 분리된 경우가 많은 데다 주방이나 간단한 취사 시설을 갖추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궁전이 아닌 다음에야 대형 호텔처럼 객실이 많지 않고 때때로 공간 내 동선이 집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분명 낯선 공간이지만 여러모로 친숙해지는 데 걸리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높일 만한 요소를 품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에어비앤비하고는 다르게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줄 주인이나 매니저가 있다. 서비스드 아파트(serviced apartment),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레지던스형 호텔... 호칭이야 어쨌든 원래 집을 고친 여행자의 공간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수백 년 된 고성, 으리으리한 궁전이나 저택이 아니어도 말이다. 베를린에서 가장 세련되고 활기 있는 미테(Mitte) 지역에는 스스로를 호텔이라고 부르지 않는 5층짜리 인기 명소, 개성 만점 부티크 호텔이 있다. 1백 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 호텔로 탄생시킨 사례인데, 러시아의 대문호 막심 고리키(Maxim Gorky)의 이름을 딴 고리키 아파트먼트(Gorki Apartments)다. 20세기 초, 특히 독일의 황금기로 불리는 1920년대에 연극배우들의 사랑을 받는 거주지였던 이곳은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가 현재의 소유주인 부동산 그룹이 사들인 다음 3년간의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2013년 대중 앞에 고풍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 기반을 둔 건축 설계 사무소 푸스후버 & 파트너(Fuchshuber & Partner), 건축가 산드라 포케(Sandra Pauquet) 등이 팀을 이뤄 리모델링 작업을 했는데, 높은 천장과 고색창연한 벽, 크라운 몰딩, 오픈 플로어 같은 베를린 아파트 특유의 구조와 요소를 살리되 하이엔드 가구와 '무인양푼류의 소품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자칭 '베를린 스타일' 럭셔리'를 뽑았다. 2개 동에 나누어져 있는 36개 아파트는 저마다 크기, 구조, 인테리어가 다르고(모든 숙소에는 부엌이 있다) 심지어 각각의 숙소마다 붙은 '명패도 'Lea Grün', 'Frau Werner' 같은 평범한 독일인 이름을 차용했다. 베를린 트렌터워 공원 근처에 2호점도 생길 예정이라고.

주인을 닮은 개성 있는 공간과 여유, 진정성 담긴 맞춤형 서비스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의 중심지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도 거주 공간을 미니멀리즘이 묻어나는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시킨 모범 사례가 있다. 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한 B-보딩하우스(B-Boardinghouse). 1914년에 지은 건물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세련미 느껴지는 현대식 공간으로 바꾼 인물은 고든 베르닝(Gordon Berning).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자신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던 세프 출신으로 고향에 돌아와 올블이 호텔을 열면서 인테리어 소재, 가구, 소품, 샴푸 브랜드까지 손수 골랐는데, 한눈에 봐도 센스가 빼어나다. B-보딩하우스 역시 원래의 공간을 살렸기에 집마다 크기와 구조가 다르지만, 인테리어 스타일은 일관성 있는 편이다. 고든은 자신의 특징을 살려 미리 신청하는 투숙객에게는 1층 카페 겸 비스트로인 M-이트 데일리(M-EAT Daily)에서 맛난 아침 식사를 손수 차려주고 예약 손님 위주로 프라이빗 쿠킹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물주이자 세프, 매니저 등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묻자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해나가면 또 모르겠다"며 싱긋 웃는다.

이처럼 정성과 애정이 배어든 호텔에 머무는 투숙객의 만족도는 확실히 높을 수밖에 없다. 큰 호텔이 지니는 다양한 서비스는 없었지만, 가장 기초적인 청결함과 편리함만 유지된다면 인간적인 대화와 따뜻하고 유연한 서비스(엔데 체크인 & 아웃 시간을 잘 조정해준다)에 호감이 절로 솟기 때문이다. 당연히 다시 찾게 될 확률도 높다. 주인이나 매니저의 관여도가 높은 곳의 경우에는 확실히 공간에도 개성이 묻어난다. 한번은 파리에 작은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가 하나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곳에 묵었는데, 다음 날 '손님이 밤늦게 야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만 확보하고) 저녁까지 마음대로 쓰라는 인심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주인은 할미였다. 아침이면 손수 바게트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커피를 내려주는데, 우리나라 시골 민박집에서 가끔 마주칠법한 마음 착한 할미의 서양 버전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이 주인정원한테는 바로 필요한데 딱히 사기는 애매한 물건(엔데대 가위 같은)을 빌릴 수도 있었다.

그렇다. 여독이 쌓인 유랑자나 출장자를 위로해주는 건 단지 '집 같은' 분위기의 쾌적한 공간만은 아니다. 사람도 특특히 한뼉한다. 집을 리모델링한 호텔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해도 그 바탕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까다로운 글로벌 나그네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자연스레 사업도 번창하는 게 순리 아닐까. 그런 공간을 사용하는 여행자 역시 존중과 배려를 지녀야함은 물론이고 말이다. **SI** 매디터 **고성현**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



순수함을 지키고 더욱 강력해진 비타민C 항산화케어의 시작

아세로라 체리에서부터 온
비타민C와 더블 히알루론산 블렌드에
사용 직전에 더해지는 순수 비타민C

아티스트리의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로
더 강력해진* 비타민C의 항산화 케어를
경험해보세요

*자사 비타민C 와일드 암 대비 36% 더 강력해진 항산화력

ARTISTRY™

be my Love

연인 간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증표이자 사랑의 메시지로 자리매김해온 주얼리
 매종에서 낭만적인 프러포즈를 위한 아이코닉 컬렉션을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왼쪽부터) 쇼메의 첫 번째 고객이자 뮤즈, 조세핀 황후에게 헌정하
 는 조세핀 컬렉션. 백로 깃털인 이그레트(aigrette)로 장식한 티파니를
 형상화해 우아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2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밴드 밑에 세팅한 조세핀 이그레트 워딩 밴드 4백만원대, 반지 중앙에
 1캐럿 피어 컷 다이아몬드를 메인 스톤으로 세팅한 조세핀 이그레트 솔리
 터어 링 3천7백만원대, 브랜드의 상징적인 컬렉션, 유각형 발진을 모티브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를 교차로 세팅한 비 마이 러브 핑크 골드 하프 다
 이아몬드 링 2백만원대, 중앙에 0.5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
 딩한 비 마이 러브 솔리테어 핑크 골드 링 4백60만원대 모두 쇼메, 중앙의
 다이아몬드 세팅 밴드 링이 자유롭게 회전하는 포채션 링 9백만원대, 장
 미를 형상화한 피아제 로즈 링 4백만원대, 1캐럿 메인 스톤과 밴드에 다
 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솔리테어 링 3천만원대 모두 피아제, (두 번째 줄
 왼쪽부터) 6개의 프롤이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돋보이게 하
 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티파니 세팅 솔리테어 링 1.82캐럿 7톤 5천만원
 대, 팔로마 피카소의 'love' 그래픽이 특징인 티파니 그래픽 러브 링 5
 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화이트 세라핀과 다이아몬드 세팅 밴드 링이 조화
 례운 라트로 다이아몬드 화이트 워딩 밴드 5백만원대, 중앙에 다이아몬드
 를 세팅한 라트로 라드윈트 화이트 골드 솔리테어 링 1천만원대 모두 부세
 룬, (맨 오른쪽 왼쪽부터) 중앙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2개의 또 다른 라운
 드 다이아몬드 밴드가 감싸는 영리스팅 워딩 밴드 링 3천9백만원대, 정교
 한 비즈 세팅이 돋보이는 베블리 솔리테어 링 0.77캐럿 7톤 2천2백만원
 대, 플라워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하고 섬세한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
 는 플로레드 워딩 밴드 2천2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왼쪽 아래 원
 형 대문자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스크루 문양을 새긴 핑크 골드 쇼채 러브 링 2백만원대, 1캐럿 다이아몬
 드를 세팅한 러브 솔리테어 링 3천1백만원대, 유려한 라인이 메인 스톤을
 우아하게 감싼 트라나티 루반 솔리테어 링 1.61캐럿 7톤 7천9백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2개의 브리지가 메인 다이아몬
 드를 돋보이게 하는 인공트로 다모레 링 1.12캐럿 7톤 4천5백만원대,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밴드가 줄어드는 형태가 우아한 베르사이 링 0.71
 캐럿 7톤 1천7백만원대 모두 벨가리, 에디터 베미진, 이자젠

쇼메 02-3442-3159 카르띠에 1566-7277 피아제 02-540-2297
 티파니 02-547-9488 부세룬 070-7500-7282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벨가리 02-3479-6076



©2017 ISSEY MIYAKE INC.

issey Miyake.com



ISSEY MIYAKE

BRUNELLO CUCINELLI

캐주얼한 무드와 편안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시폰 플리츠 디테일의 니트 드레스. 여름과 가을을 오가는 이맘때는 이 한 벌로도 충분하지만, 겨울에는 니트 블라우스를 이너로 입거나 가죽 레깅스 혹은 팬츠와 함께 다양한 레이아웃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울 자치 소재와 시폰 레이스가 어우러진 원피스 3백77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48-2931



FABIANA FILIPPI

브랜드 특유의 차분한 컬러와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이 인상 깊다. 스웨이드는 가죽과 함께하면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나, 이와 어울리는 슈즈를 고를 땀 멋스러운 레더 부츠를 선택할 것. 그레이와 베이지로 이어지는 단색의 색조에 니트와 스웨이드 소재를 레이아웃한 원피스 2백58만원 **파비아나 필리피**, 문의 02-6960-0831



autumn **Breeze**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풍요로운 가을에 어울리는 드레스 4선.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에디터 이지연

HERMÈS

특별한 날을 위한 이브닝드레스뿐 아니라, 롱 트랜치코트와 매치하는 등 일상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여성의 보디라인을 강조한 벨트 디테일의 실루엣이 한층 드레시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플라몬스(lemons) 프린트 실크 원피스 4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GIAMBATTISTA VALLI

남성들의 로망을 충족시킬 사용연색 외에도, 오묘한 퍼플 컬러의 플라워 프린트가 돋보인다. 지극히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화려한 액세서리와 함께 과감한 스타일링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지. 플로럴 프린트 화이트 실크 원피스 4백10만원 **지ambat타스타 발리**, 문의 02-6905-3357
에디터 이지연



PHOTO: F.GIACOBETTI ©2017 ISSEY MIYAKE INC.

issey Miyake.com

**PLEATS
PLEASE**

ISSEY MIYAKE

legendary Icon

"나는 시간을 보기 위해 탱크 위치를 착용하지 않는다. 탱크 위치가 꼭 착용해야 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착용한다."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 수많은 명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이한 탱크 위치. 이 매력적이고도 우아한 직사각형 시계는 '탱크는 탱크다(Tank is a Tank)'라는 표현만으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무언의 의미가 함축된 코드이자 영원한 아이콘이다.

1917년, 시계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프랑스 르노 탱크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직사각형 손목시계, 탱크 위치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상상해보라.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인 그 시절, 라운드 케이스의 손목시계만 존재하던 시계 시장에 굳 더더기 없이 모던한 직사각형 디자인과 깔끔한 직선이 돋보이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탱크 위치가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전복하고 얼마나 대범하고 자유분방한 감성을 드러냈을지! 미학적 측면만큼이나 까다로운 기술력으로 완성한 탱크 위치는 첫선을 보인 이후 시계 제조업계의 명백한 지표가 되었고, 점차 진화하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모던함을 간직한 까르띠에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이 공존하는 스타일로, 1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탱크 위치의 매력은 루이 까르띠에의 남다른 감각으로 과거에도 모던하고 우아한 오라를 뽐낸 히스토리 사진을 확인해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많은 명사들이 사랑한 전설의 아이콘, 탱크

탱크 시계만큼 국가, 성별, 나이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위치는 드물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간 만나온 패션 필드의 사람들 중 과반수 이상이 착용한 시계가 탱크였다는 점과 유명 패션 위치 브랜드 CEO들에게 던진 '당신의 데일리 위치는 무엇인가'는 질문에 탱크 위치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위치가 디자인, 기술력, 착용감 등 모든 것을 통틀어 '정말 잘 만든 시계'라는 것과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시계가 아닌, 시계 그 자체만으로도 착용자의 취향과 스타일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아이콘이라는 점을 여실히 증명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탱크 위치를 애용한 명사들의 리스트만 해도 실로 화려한데, 대표적으로 게리 쿠퍼, 마돈나, 카트린 드뇌브, 이브 생 로랑,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 앤디 워홀, 알랭 들롱 등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탱크 위치가 뽐내는 에너지는 뛰어난 인목을 지닌 이들과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왔고, 그들의 다양한 일화와 인용문은 탱크 위치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부각한다. 영화 <리스본 특급> 촬영 중 알랭 들롱은 감독인 장 피에르 멜빌이 자신의 것과 똑같은 탱크 아롱디 위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함께 사진을 찍었다. 프랑스 디자이너인 장 사를르 드 카스텔바작은 프랑스 주간지에서 탱크 위치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탱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에 비유해 "모든 탱크를 까르띠에가 만들었다면 이 시대는 평화로웠을 겁니다"라고 언급해 탱크 위치에 대한 정치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1, 7 1922년에 탄생한 탱크 루이 까르띠에 위치에 대한 오마주로 선보이는 2017년 탱크 루이 까르띠에 위치. 다양한 소재와 스트랩으로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2 케이스, 사프트, 링크가 조화롭게 연결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2017년 탱크 프랑세즈 위치. 3 장 사를르 드 카스텔바작의 일러스트. © Jean-Charles de Castelbajac 4 탱크 알롱제(1973). Eric Sauvage © Cartier 5 배우 알랭 들롱과 감독 장 피에르 멜빌. © Sunset Boulevard 6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 © Sipa Images



까르띠에 아이덴티티로 완성한 품격, 2017년 탱크 신제품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황금 비율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케이스 외에도 강렬하고 그래픽적인 매력을 선사하는 로마숫자, 기차길을 연상케 하는 철길 모양의 미니 트랙, 케이스와 스트랩의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는 사프트, 카보송 것 사이어로 장식한 비즈 크라운이 상징적인 탱크 위치는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1922년에 탄생한 탱크 루이 까르띠에 위치에 대한 오마주로 출시한 '2017년 탱크 루이 까르띠에 위치'는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8971MC의 강력한 심장을 품었으며, 눈길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컬러 스트랩과 더없이 우아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등 다양한 레퍼런스 출시해 탱크 마니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만곡형 케이스와 비스듬히 커팅한 사프트, 오목하게 흰 링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2017년 탱크 프랑세즈 위치', 1989년에 출시한 탱크 아메리칸 위치를 스틸 버전으로 선보이는 '2017년 탱크 아메리칸 위치 스틸', 하나의 예술품처럼 진귀한 칼리버의 움직임을 다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17년 탱크 상트 레스켈레톤 위치'까지, 이 모든 1백 주년 에디션 탱크 위치 신제품은 오직 까르띠에 매종 청담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66-7277 **에디터 권유진**



Hyundai Main / Coex / Mokdong / Daegu / Ulsan / Pangyo **Shinsegae** Main / Gangnam / Gyeonggi / Daegu
Galleria East / Timeworld **AK Plaza** Bundang **Lotte** Avenuel World Tower
+82 2 6960 0831

자오에트릭 란타드 롱 코트
2백78만원, 칼라와 소매의
프릴로 로맨틱한 느낌을
살린 핑크 실크 블라우스
93만원천원 모두 **이지벨마랑**.



Autumn Sonata

가을 서정이 진하게 느껴지는 이지벨마랑의 뉴
럭셔리 보헤미안 룩. 더욱 깊어진 눈빛이 매력적인
여배우 김효진이 올가을의 뮤즈로 선택됐다.
photographed by kim hee jun



이티스틱한 패턴이 돋보이는 스웨터
1백38만원, 핑크 스웨이드 소재 프릴
스카트 66만원천원, 버클 디테일의
캐주얼 로퍼 85만원천원, 피어싱 모티브
골드 링 11만원천원, 화이트와 블랙 장식
골드 링 7만원천원 모두 **이지벨마랑**.

이지벨마랑

반트퍼한 크랙 디테일이
돋보이는 레더 재킷
2백78만원, 플로럴 패턴
시폰 원피스 79만원천원
모두 **이지벨마랑**.



포근한 양털 칼라 디테일 시어링
재킷 4백98만원, 스트라이프
패턴의 바건디 셔츠 원피스
1백25만원천원, 블랙 롱부츠
1백78만원 모두 **이지벨마랑**.



핑크 코듀로이 블라우스
67만8천원, 핑크
스타이프 패턴 셔츠 드레스
1백48만원, 글리터 코르사주
장식의 앵클 스트랩 샌들
93만8천원 모두 **이지벨마랑**.



체크 패턴의 트윈드 재킷
1백38만원, 플로럴 프린트
실크 블라우스 1백18만원,
빈폴라리는 큐빅 스매글 장식의
워싱 블랙 진 2백38만원,
외일드 글리터 아이밍
75만8천원 모두 **이지벨마랑**.



코란 실루엣이 돋보이는 핑크
패딩 점퍼 1백18만원, 체크
패딩 롱 슬리브스 69만원, 체크
스타드를 다룬 앵글부츠
1백18만원 모두 **이지캐미랑**.

강입 체크 패턴의 플레킷 코트
99만원, 캐주얼 니트 플로우어
45만원, 카키 컬러 니트 팬츠
49만원, 브랜디 미니멀을 모티브로
한 지수 스타치 디테일의 스니커즈
67만원 모두 **이지캐미랑**.

문의 **이지캐미랑** 02-516-3737

헤어 **정은구** 유제
메이크업 **송은경** 유제
스타일리스트 **곽지아**
세트 스타일리스트 **박주영**
에디터 **배미진, 이지연**



이지캐미랑
www.ezcamirang.com

fatal Temptation

유혹과 부활, 변형을 상징하며 인류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뱀은 1백12년 전통을 지닌 불가리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의 대담한 창의성을 대변하는 진정한 아이콘이다. 이런 뱀 모티브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미술, 디자인, 패션 등 세계적인 명작에 미친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여정이 아시아의 주요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펼쳐졌다. 뱀의 풍부한 상징성을 불가리 특유의 우아하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특별전, <세르펜티 폼(Serpenti Form)>이 바로 그것이다.

로마 브랜드의 대담한 창의성을 대변하는 아이콘, 불가리 세르펜티 컬렉션

지난 8월 19일, 아시아의 주요 허브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 위치한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에서 모습 자체만으로도 강렬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뱀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불가리의 특별전 <세르펜티 폼>이 진행되는 행사장은 작은 모티브까지 뱀을 사용해 하나의 뱀으로 탈바꿈한 듯했다. 매혹적인 금빛으로 물든 뱀의 육각형 비늘이 전시장 벽면을 장식했고, 그 위에 우아하고 화려하게 움직이는 뱀의 모습을 담은 디지털 영상이 상영되어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 공간에서 눈치챌 수 있듯 이번 전시는 불가리의 상징적인 아이콘이자, 인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모티브인 뱀에 주목했다. 1940년대, 뱀의 역동적인 형상을 재해석한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워치를 처음 선보인 불가리는 이 오랜 아이콘을 대중에게 다가가 친근함과 동시에, 대담하고 풍부한 상징성을 지닌 뱀이 비단 불가리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데 착안해 뱀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전시 <세르펜티 폼>을 개최하게 된 것. 이번 전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단순히 브랜드의 아이콘을 전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닌, 뱀을 모티브로 한 잔귀 한 고대 유물부터 호안 미로, 마르크 샤갈, 일렉산더 쿨더, 키스 해링 등 근현대미술의 수많은 거장의 작품을 통해 뱀에 관한 비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영화, 오페라에서 사용한 무대미술과 최고의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들의 빈티지 드레스를 통해 구상을 한층 풍부하게 했으며, 불가리의 아이콘 컬렉션에서 선별한 찬란한 불가리 세르펜티 컬렉션을 함께 선보여 어떻게 뱀 모티브가 변형없이 진화하고, 브랜드 고집하지 않는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날 진행된 전시 오픈닝 행사에서 불가리 CEO 장 크리스트ophe 바뱅은 "이번 전시는 불가리에 대한 면적으로 영감을 준 뱀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1백50가지 이상의 전사 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살츠와 디지털 체험이 뱀의 형상과 의미를 더욱 매력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토록 흥미롭고 인상적인 모티브인 뱀과 불가리가 불가분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스타일 조선행보는 이 의미 있는 현장에서 불가리 이벤트 & 헤리티지 부서 책임자이자, 이번 전시의 큐레이팅을 맡은 브랜드 & 헤리티지 큐레이터 루치아 보스카이나와 직접 만나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세르펜티 폼> 전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 with Lucia Boscaïni

Q1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파인 아트 큐레이팅과 브랜드 콘텐츠에 예술성을 더한 큐레이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브랜드 헤리티지 전사가 일반 아트 전시와 다른 부분은 전시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PR, 이벤트, 그 외 다른 액티비티를 모두 연관성 있게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 불가리 세르펜티의 뱀 모티브와 일치되는 시각을 지닌 아트웍스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이에 대한 리서치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리서치에서 주요점을 둔 부분은 불가리 세르펜티 컬렉션 특유의 현대적이고 정교한 디자인, 장인 정신을 공통적으로 내포한 예술품을 찾는 것이었어요. 더불어 불가리는 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세르펜티에 관련된 폭넓은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듯, 이번 아트웍스 전시를 통해 동서양에서 뱀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왔는지, 서로 개별화한 사선으로 재해석한 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Q2 가장 중점적으로 큐레이팅한 부분은 무엇인가? 주목해야 할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지** 관련 포인트를 알려달라.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고대 유물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불가리는 칸텔라피리 브랜딩과 그동안 현대 예술과 연계한 작업을 많이 해왔죠.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고대 유물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이는 고대 유물 중 특히 신화, 전설 등 동서양의 예술에서 뱀을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했는지 그 결과물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이에요. 이번 전시에 소개한 많은 작품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작품은 중국 작가인 우자옌안(Wu Jian'an)의 페이퍼 아트로, 작품에 담긴 장인 정신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는 중국의 허안백 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는데, 무려 2m가 넘는 거대한 작품으로, 종이를 하나하나 잘라 연출한 페이퍼 컷 방식으로 표현해 가까이에서 보면 그 정교한 장인 정신에 더욱 놀라게 되죠. 이처럼 모티브와 전설은 굉장히 전통적인 반면 컬러나 재료 구현에서는 현대적이어서 불가리의 세르펜티처럼 전통과 모던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Q3 대중을 대상으로 어떻게 큰 이벤트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나?**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가리의 아이콘인 뱀이라는 독창적 모티브를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였는지, 더불어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접목해 뱀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르펜티의 투보가스 티셔츠를 비롯해 뱀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하이 주얼리, 이에 대한 잔구한 보석 세팅 기술에서 엿볼 수 있는 장인 정신은 세르펜티 컬렉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세르펜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아트웍스라고 생각해요. 그 때문에 세르펜티 컬렉션을 다른 예술 작품과 연계한 전시를 기획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2년 전에 처음 나왔고, 방대한 리서치 과정을 거쳐 작년 3월 로마에서 전시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이번 싱가포르에서의 대형 전시는 로마 전시에 비해 좀 더 확장된 컬렉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라고 생각해요. **Q5 불가리는 로마 브랜드다. 로마가 역사와 유산의 도시인 것처럼 불가리 역시 역사의 깊이가 다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아이콘을 관리하는 것, 즉 각종 자료와 문서, 불가리 헤리티지 주얼리 컬렉션을 한층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불가리 브랜드의 히스토리부터 과거에 불가리 컬렉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엠베서더와 고객 리스트 등의 자료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연구해 브랜드의 아이콘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헤리티지 주얼리 컬렉션의 경우 총 8백여 개를 아카이브에 등록했는데, 이는 놀라울 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못한 중요한 주얼리 피스를 찾아내고 보유하는 작업에 신경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업무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현해 대중에게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한데, 대표적으로 브랜드 서적 출간과 이번 전시가 예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권유진**(싱가포르 현지 취재



1 뱀에 대한 전설과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잔구한 고대 유물을 전시한 공간. 2 전시장 벽면에 설치한, 뱀의 육각형 비늘을 형상화한 강렬한 미디어 디스플레이. 3 중국 아티스트 우자옌안의 'The White Snake Hid Immediately', 2015. 4 불가리 브랜드 & 헤리티지 큐레이터 루치아 보스카이나. 5 근현대미술사 중에는 일렉산더 쿨더, 키스 해링 등 거장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6 (투린도트) 오페라에 등장했던 뱀 모티브의 망토, 길이가 5m에 달한다. 7 불가리 헤리티지 컬렉션 중 하나인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워치(1969).



modern Square

발리의 아카이브에서 꺼내 온 네모난 버클 장식의 자넬(Janelle) 컬렉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자넬 패밀리. 이번 시즌 키 트렌드인 레트로 무드와도 잘 어울리는 자넬 컬렉션은 1960년대 감성을 담아 선보이는. 뒷굽을 접었다 펼 수 있도록 디자인한 바부슈 스타일의 슈즈와 클러치, 그리고 토트백까지 다양하게 전개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sponsored by BALLY



(중앙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자넬 패밀리를 상징하는 구조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유광 스퀘어 버클로 장식했다. 최고급 카프 레더로 완성했으며, 탈착 가능한 솔더 스트랩으로 실용성을 더한 스몰 벨(Belle) 백 1백87만원, 아이보리 컬러의 보타와 골드 톤의 스퀘어 버클이 모던한 느낌을 지어내는 자넬 슈즈 89만원,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3cm 높이의 창가뵈 블랙 힐이 특징인 디크 그레이 컬러 자넬 슈즈 89만원, 코코아 컬러 카프 레더에 골드 자넬 버클을 더한 바부슈 스타일의 슈즈 89만원, 시그니처 자넬 슈즈의 힐 버전으로 재탄생한 창가뵈 힐이 돋보이는 블랙 자넬 슈즈 99만원, 레오파드 프린트가 포인트인 송차(죽 소재의 시그니처 벨트) 디테일을 더한 벨 클러치 백 2백19만원, 탈착 가능한 얇은 골드 솔더 체인을 함께 제공하는 블랙 벨 클러치 1백47만원 모 두 발리. 문의 02-3467-8935 에디션 배미진, 이지연

school of jewelry Arts



하이엔드 주얼리의 역사와 세공 노하우, 아름다운 비밀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도 오픈했다. 바로 반클리프 아펠에서 후원하는 레콜 주얼리 스쿨. 파리에 본교를 둔 이 주얼리 학교가 국제적인 도시인 홍콩에서 벌써 세 번째 교육과정을 열었다. 이 독보적인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가 홍콩을 찾았다.



1 주얼리 교육기관인 레콜 주얼리 스쿨의 로고. 2 레콜 주얼리 스쿨이 위치한 홍콩 디자인 허브, PMQ 빌딩. 3 파리에서 직접 홍콩을 방문한 장인과 전문가에게 1:1로 주얼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체험 수업뿐 아니라 주얼리의 역사와 스타일까지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새롭게 선보였다. 5 파리 주얼리 공방에서 직접 공수한, 장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방 도구. 6 아이들도 주얼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7 올해 반클리프 아펠에서 선보인 하이 주얼리 시리즈 컬렉션. 이러한 하이 주얼리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얼리 스쿨을 오픈했다.

반클리프 아펠, 레콜 주얼리 스쿨 홍콩 오픈

아름답고 진귀한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는 하이 주얼리 매종 반클리프 아펠은 이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지닌 브랜드답게, 많은 이들에게 주얼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주얼리 학교' 즉, 독자적인 레콜 주얼리 스쿨을 지난 2012년 개교했다. 주얼리 제작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많은 이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 레콜의 설립 목적은 우수한 주얼리 공예 정신에 대한 지적, 정서적 이해를 고취하고 주얼리 공예 기법의 신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독려해 손재주와 인품, 감각을 교육하는 것이기에 매우 의미 깊은 행보다. 레콜은 학생들이 전문가와 만나 재료를 직접 다루고 장인 정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독창적인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홍콩에 세 번째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 것. 아름답고 깊은 히스토리를 지닌 주얼리 브랜드가 보석의 역사와 디자인, 그리고 세공 기술을 살짝 엿볼 수 있도록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홍콩의 창의적인 디자인 허브 PMQ에 주얼리 체험을 위한 멋진 공간을 꾸몄다. 지역사회와의 공유를 사명으로 삼는 레콜 반클리프 아펠이 홍콩에서 교육과정을 연 것이 벌써 세 번째다. 니콜라 보스(Nicolas Bos) 반클리프 아펠 회장은 "레콜 주얼리 학교는 홍콩에서 이미 두 차례의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운영했다. 이번 세 번째 프로그램에는 창의적인 홍콩 학생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모여 배우고 장인 정신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커리큘럼, 주얼리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

올해는 6개의 신규 과정을 포함한 10개의 과정을 개설하는데, 주얼리 예술사, 장인 정신, 원석의 세계라는 세 가지 주제 아래 세부 강의를 펼쳐진다. 강의 시간은 수업당 2~4시간이며 모든 과정에는 주얼리 전문가, 예술사학자, 보석감정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해 수업을 진행하는 독보적인 커리큘럼을 갖추었다. 먼저 장인 정신 과정은 주얼리 제작 이면에 숨겨진 주얼리 세공 기술을 탐구하고 경험하기 위해 주얼리 장인의 워크숍으로 학생들을 초대한다. 주얼리 예술사 과정에서는 경이로운 주얼리 세계의 일부로서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는 미의 주요 원천과 상징을 탐구한다. 원석의 세계 과정에서는 지구 최고의 보물인 원석의 기원과 진화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강의는 학생들이 직접 전문 기술을 실습해보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여러 견해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몰입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학생 수를 한 강의당 최대 12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레콜 주얼리 스쿨의 학장인 마리 발라네-들롬(Marie Vallanet-

Delhom)의 서명이 들어간 수료증을 전달해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실습을 함께 하는 세공과 관련된 커리큘럼의 경우 왁스 작업에서 스톤 세팅 기법, 프랑수아 주얼리에서 일본 옷질 작업까지 하이엔드 주얼리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을 가깝게 체험해볼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커리큘럼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역시 눈에 띄는 요소인데, 소규모 모임에 초청된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양한 재료로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스톤과 주얼리 제작에 대해 배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창의성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행사장 중앙에 전시된, 레거시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된 포토그래퍼들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는데,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파리 국립광업학교(Mines Paris Tech)와 연계해 '보석의 예술 - 주얼리와 보석 사진 비교 연구, 원본과 수정본의 연결성'이라는 주제로 반클리프 아펠의 주얼리와 페어링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홍콩의 유명 포토그래퍼들과 교육기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후보자를 1명씩 추천받아 그중 우수자에게 프랑스 파리의 레콜 주얼리 스쿨의 강사진과 함께 3일간의 문화 교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국경을 넘나들며 주얼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진정성을 담아 노력하는 반클리프 아펠의 주얼리 학교 레콜을 서울에서도 만나보기를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미진(홍콩 현지 취재)



make ideal Skin

고가의 하이엔드 코스메틱을 사용하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기초 라인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안 후 가장 첫 단계에 에멀션과 화장수를 발라 피부 자체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코스메 데코르테의 신개념 스킨케어 방식은 기존 당신이 생각하던 뷰티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피부와 마음에 궁극의 평안을 선사하는, 데코르테 NEW AQ 라인

몇 해 전부터 이상적인 스킨이란 속부터 스스로 빛이 나는 피부로 정의되었다. 메이크업으로 만든 인위적인 빛이 아닌, 자연스러운 광채로 완성한 피부 말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먼저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야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듯, 피부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제대로 된 기초 스킨케어 방식을 지키느냐에 따라 피부 상태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여기 코스메 데코르테(이하 '데코르테')의 피부 과학 기술을 응집한 프리미엄 라인 'AQ'가 이를 증명해줄 것이다. AQ 컬렉션은 몸과 마음이 릴랙스된 상태에서 진정한 스킨케어의 효과가 발휘된다는 믿음을 담아 1990년 처음 탄생시킨 라인이다. 출시 이후 압선된 성분과 유효 성분을 필요한 곳까지 전달해주는 기술력, 풍부한 향, 영감을 주는 패키징 디자인까지, 여성의 피부뿐 아니라 남성까지 섬세하게 어루만져주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다. 그리고 올 가을, 데코르테 AQ 컬렉션이 다섯 번의 진화를 거쳐 NEW AQ 라인을 선보인다. 클렌징 크림부터 로션, 에멀션, 세럼, 크림에 이르기까지 총 10가지 신제품으로 구성된 이번 스킨케어 라인은 기초부터 특별한 데코르테만의 스킨케어 솔루션으로, 여타 코스메틱 브랜드의 기초 스킨케어 라인과는 확실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VIP만을 위한 고품격 베이스 스킨케어를 데코르테 NEW AQ를 통해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당신이 지금 AQ 라인을 선택해야 할 이유

데코르테 제품 중에서도 하이엔드로 손꼽히는 AQ 라인은 사용 방법 또한 기존 타 브랜드의 스킨과 로션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기초 라인과는 정반대다. 세안 후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로션 제형의 에멀션을 바르고, 그 후에 워터 타입의 로션을 바르는 등 뷰티 루틴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새로운 발상을 제안한 것. 그렇다면 왜 제형이 도진한 에멀션을 먼저 발라야 할까? 건조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바르는 제품이 피부에 가장 많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미끈 스펀지와 물을 한껏 빨아들인 스펀지에 대면해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미끈 스펀지에 생긴 물길을 따라 물이 빠른 속도로 흡수되는 것처럼 에센스 에멀션은 세안 후 건조한 피부에 물을 열어 다음 제품의 흡수율을 높여준다. 또 다른 예로 밥을 잘 짓는 방법 중 하나가 쌀을 씻을 때 첫 물로 좋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미끈 쌀이 처음 물을 접한 순간 가장 많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에센스가 함유된 에멀션을 가장 먼저 바르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97개의 신제품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아이템은 바로 앞서 설명한 'AQ 에멀션'과 'AQ 로션', 그리고 피부에 부드럽게 탄력을 선사하는 오일 타입 세럼인 'AQ 오일 인뮤잔티'이다. 에디터는 지난 7월 27일 도쿄에서 열린 데코르테 NEW AQ 라인 론칭 행사에 참석한 이후, 이 제품을 가장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해 보았다. 처음엔 세안 후 첫 단계에 워터 타입 토너가 아닌 로션 제형의 에멀션을 바르는데 게 어색했지만, 바르자마자 부드럽게 스며들고 끈적이는 현상이 없어진 것을 느낀 이후에는 한결 안심이 되었다. 그런 다음, 코튼 패드까지 적실 정도로 충분한 양의 로션을 얼굴에 가볍게 두드리면서 풀어올라듯 패딩한다. 시원한 워터 텍스처가 수분감과 동시에 순간적인 쿨링 효과를 주어 만족스러웠다. 전체적으로 얼굴에 고르게 흡수되었다면,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면 된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윤기 있고 우아한 피부 변화와 함께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반짝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듯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것은 피부에 탁월한 재생 기능을 발휘하는 엑셀루트 포뮬라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1년 중 단 몇 주만 추출 가능한 귀한 자작나무 수액과 알긴, 수용성 프로테오글리칸, 베타인 추출물의 데코르테 복합 성분, 그리고 단반산 후단에서 추출한 하이드롤라이즈드 콩 추출물이 바로 그것. 데코르테만의 독자적인 캡슐 전달 기술인 '하이 올레인 딜리버시'가 앞서 말한 성분들을 영양이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준다. 여기에 풍요로운 열화 마인드 향까지 더해 제품을 바르는 순간에도 힐링되는 느낌을 안겨준다. 올 가을 스킨케어 라인을 고민한다면, 정답은 데코르테 AQ다. 문의 080-568-3111 에디터 이지연



editor's Pick

가을의 서막을 열어줄,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추천하는 뷰티 신제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블룸** 일렉산드로 미켈레가 표현한 구찌의 첫 향수로, 앞으로 구찌 하우스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여성들이 진정한 자아의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은 이 향수는 로즈와 재스민, 피오니, 릴리 등을 자연스럽게 블렌딩해 매력적인 향으로 탄생시켰다. 100ml 18만3천원. 문의 02-6924-6572. *by 에디터 이지연*

랑콤 인슐리 글로스 유리아말착염 빈백이는 '쉬어와 부드러운 크림', 매끄러운 벨벳, 세 가지 텍스처로 선보이는 인슐리 시리즈의 신제품. 에디터가 선택한 것은 '로 인슐리 글로스 크림'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랩탈착염 인슐 유에 미끄러져듯이 밀리며, 자연스러운 컬러 발색과 광택이 돋보인다. 8ml 4만2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이지연*

선풍수 파렐링쿠신 스테디셀러 쿠신 매트인 선풍수 파렐링쿠신이 더 가볍고, 더 촉촉해졌으며, 더욱 자연스럽고 깨끗한 카바리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완벽한 밀착 카바를 위한 슬림핏 하이 카바리지 포플라와 차이브셋 유래 성분과 강력한 보습 성분을 그대로 담아 촉촉할 뿐만 아니라 카바릭 또한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 15g*2개리플 포함 6만15천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권유진*

프래쉬 크림 인시엔스 수프림 아이 세럼 아이 크림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다. 끈적임은 버리고 촉촉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이 크림은 역시 하이엔드 스킨케어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만한 제품이다. 주름 개선 기능성 인장을 받았기에 안티에이징 기능도 뛰어나다.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면에서는 최고급을 주고 싶다. 15ml 26만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배미진*

에르메스 트윙클 데르메스 스킨케어 맨 귀여운 보틀이 인상적인 이 향수는 진자와 투베로즈, 샌들우드를 재치 있게 믹스해 절교 활기찬 현대 여성을 표현했다. 에르메스의 기존 향보다는 한층 절교 감각적인 향으로, 20~30대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85ml 18만9천원. 문의 02-310-5174. *by 에디터 이지연*

사벨 라 크림 망 핸드크림도 역시 사벨이 만들면 다르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매끈하고 세련된 조약을 때까지 디자인이 그저 예뻐다는 것만과 함께 무조건 소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제품.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게 쏙 흡수되고, 손을 씻은 후에도 손이 매끄러워 만족스럽다. 50ml 8만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나스 벨벳 매트 피운데이션 스틱 다시 스틱의 시대가 왔다. 최근 얼굴의 윤곽을 교정하는 컨투어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피운데이션 스틱 마니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조함이나 뭉침 없이 얼굴 전체에 퍼 바를 수 있고, 아무도 걸러줄 선택해 턱 라인을 타치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9g 6만3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배미진*

트리아 스킨 리뉴 레이저 트리아 스킨 리뉴 레이저는 집에서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피맛길 개선 효과의 프라사롤 레이저 의료 기기다. 피부 타입에 맞게 총 3단계로 강도를 조절해 매일 저녁 스킨케어 단계 마무리에 사용하면 된다. 약 4주간 사용했는데, 붉은 기가 많이 진정되었어요 피부결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다. 64만9천원. 문의 080-369-3300. *by 에디터 이지연*

조르자오 아르마니 아이엔트 #23 스모키 샌드 눈 전용 '트트리'는 제품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눈가 피부에 가볍고 완벽하게 밀착되는 텍스처가 인상적이다. 보통 아이엔트를 바르면 갈라가 손에 묻어나거나 생개울 라인을 따라 뭉치기 일쑤인데, 이 제품은 기루 날림, 크리드 현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아이 메이크업의 신세계를 발견해 6.5ml 4만9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권유진*

디올 5 콜리르 메이크업 마니아들이 매 시즌 손꼽아 기다리는 디올의 아이 메이크업 팔레트. 매트, 벨벳, 섀인, 리페, 글리터 등 모든 텍스처를 하나의 팔레트로 만나볼 수 있다. 렉서리한 색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7g 8만15천원. 문의 02-3438-9631. *by 에디터 배미진*

리프레이 벨루라 스펀지 발란싱 로션 토너의 힘은 강력하다. 애센스만큼 촉촉함을 유지시키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이 제품에는 유럽 제임에도 독특한 계 인성 성분이 담겨 있다. 피부에 필수적인 비타민 A·C·E를 충분히 함유해 항산화 효과를 낸다. 진들이 전 여러 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건조함을 막아준다. 250ml 22만3천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배미진*

에바 드라사라 리뉴 모닝크림 유가 농 재스민과 캐비탈 성분은 인성을 개선하고 탄력을 높여준다. 은은한 향기를 더해 피부는 물론 마음까지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어 더욱 손이 간다. 기초 세안 후 얼굴에 꼼꼼히 바르고 나면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얇은 보호막이 생긴 느낌이 든다. 건조해 느껴지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50ml 7만9천원. 문의 02-3440-2905. *by 에디터 이지연*

오엠 미들라바 하이dra리빙 크림 만능적 약진성 피부에 사용해도 좋을 만큼 공급력에서 인정을 줄 정도로 뛰어난 제품이다. 피부에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한다. 비르는 대로 스며들기에 민감한 피부에도 좋다. 50ml 13만원. 문의 02-517-5513. *by 에디터 배미진*

모로코오일 바디 수플레 독특하고 매력적인 재함을 구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모로코오일에서 바디 케어 제품을 선보인다. 수플레라는 이름처럼 샤워 후 피부에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천연 수분막이 형성되어 촉촉하다. 끈적이지 않아 더욱 좋다. 190ml 6만9천원. 문의 1666-5125. *by 에디터 배미진*



한석규가 선택한 격이 다른 프리미엄 녹용 정관장 천녹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나만의 현명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청정환경 뉴질랜드 정부와 최고만을 까다롭게 고집하는 정관장이 두 번 검증한 건강한 녹용을 담은 정관장 천녹이 바로 그 해답! 배우 한석규도 선택한 천녹을 지금 만나보자. 에디터 박나영

배우 한석규, 녹용의 대표 브랜드 정관장 천녹에 반하다.

밤샘촬영이 다반사인 경우에도 천녹의 효능 덕에 지치지 않고 생생한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배우 한석규. 천녹의 모델인 그는 정관장 연구원과의 대화를 통해 엄격한 원료 검증과 생산 과정을 확인한 후 천녹에 대해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주변인들에게 자신있게 천녹을 추천하는 이유!

한석규: 녹용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관장: 녹용은 예로부터 몸이 급격히 약해지거나 쇠약해진 사람, 뼈마디가 시리고 아픈 사람들의 몸을 보하는데 쓰여져 왔습니다. 장수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영조도 녹용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하지만 요즘 녹용은 원산지 문제로 믿기 어려워서 피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정관장: 녹용의 원산지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광복병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사슴은 엄격한 사육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녹용은 어떤 환경에서 자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정관장 천녹은 '더블태그'라는 이중 관리 시스템을 거쳐 믿을 수 있어요.

정관장: **더블태그가 무엇인가요?** 천녹은 뉴질랜드 정부의 인증 태그가 부착된 녹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관장의 구매전문가들이 최상의 녹용을 다시 한 번 선별해 최종 선택된 녹용에 정관장의 태그를 부착하지요. 뉴질랜드 정부와 정관장의 이중 인증, '더블태그'를 거치기 때문에 천녹의 녹용은 믿을 수 있죠. 이는 천녹의 8단계 녹용 품질관리 기준 중 하나의 절차입니다.

정관장: **8단계의 품질관리라니 더욱 믿음이 가는데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와 계약체결, 관리 전문 수의사에 의한 절각 및 녹용의 이력관리, 원료의 안전성 검증, 더블태그 품질 검증,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한 원료 건조, 정관장 녹용팀 구매 전문가의 건조 검증, 식약처 주관의 직수입 통관, 자체 품질 검사로 품질검증 등 총 8단계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관장 천녹이란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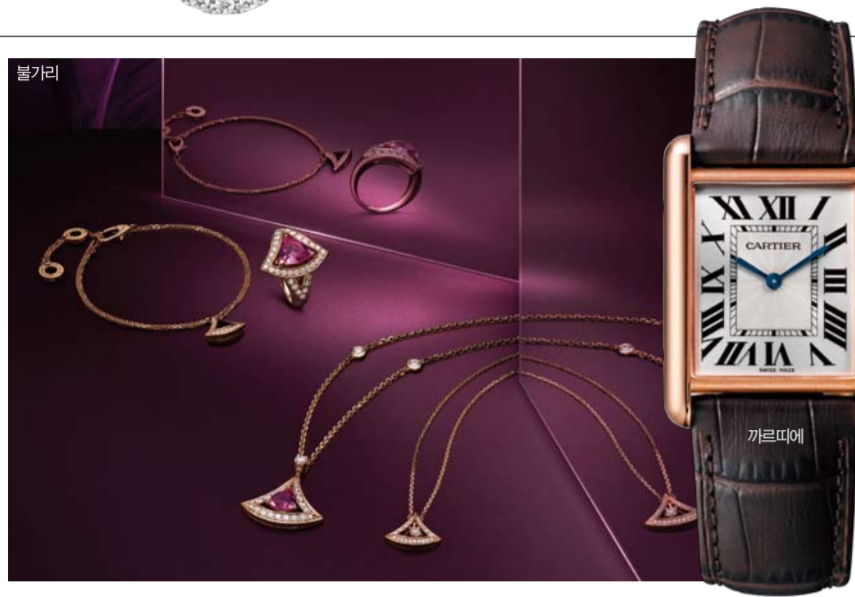
녹용을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 천녹
녹용의 효과를 경험하고 싶다면 뉴질랜드 정부와 정관장의 '더블태그' 인증을 받은 정관장 천녹을 선택할 것. 가격이 떨어진 남편, 나이드신 부모님, 체력 보강이 필요한 수험생 등 온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관리법이다.

정관장 천녹
1 천녹정 믿을 수 있는 녹용을 제대로 진하게 담은 농축액. 환절기에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기력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이다. 녹용의 비린 맛을 확실히 잡아 달콤한 맛이라 섭취가 용이하다. 180g*2병 45만원. 2 천녹정 에브리타임 천녹정의 효능을 일상 생활 속에서 한 포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섭취 할 수 있는 스틱포 제품. 출장, 휴가 등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원기회복 효과를 선사한다. 10g*30포 24만원. 3 천녹혼 한 포에 정성을 들여 담아낸 프리미엄 녹용 파우치. 환절기 등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나 허약체질, 만성피로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하기 좋다. 70ml*30포/70ml*60포 26만원/48만원.



SHOWROOM

JEWEL & WATCH



볼가리

타사키

카르띠에

카르띠에 탱크 루이 카르띠에에 워치 카르띠에는 1922년 탄생한 탱크 루이 카르띠에에 워치의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핑크 골드 모델은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8971 MC의 리듬에 따라 활하게 박동한다. 더없이 우아한 이 워치는 27가지 사이즈로 출시되며, 카르띠에의 아이덴티티로 완성된 품격을 느낄 수 있다. 문의 1566-7277

볼가리 뉴 디바스 드림 컬렉션 볼가리는 여성의 우아함, 로마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뉴 디바스 드림 컬렉션'을 공개했다. 젤스톤의 재기 넘치는 형태부터 강렬한 색감과 아이코닉한 부채꼴 모티프의 창의적인 해석까지, 다양하게 표현된 우아함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컬러, 대담한 젤스톤 컷,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 등 볼가리의 감성과 매력을 오롯이 담고 있다. 문의 02-3479-6076

골든듀 카를릿 카를 링 골든듀는 깊어가는 가을, 사랑을 약속하는 커플을 위한 '카를릿 카를 링'을 선보인다. 심플한 카팅 라인에 순수한 금속의 광택과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을 담은 디자인으로, 움직임에 따라 금속 고유의 빛을 다채롭게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동일한 디자인에서 다양한 커플링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 문의 1588-6576

타사키 찬트 이어링 타사키는 심플하고 2차원적으로 꽃의 윤곽을 그려낸 '찬트 이어링'을 선보인다. 각각의 꽃이 즐겁게 노래하는 듯 리듬감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찬트 이어링은 최상급 아교아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그래픽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브랜드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찬트 이어링으로 룩에 포인트를 더해보자. 문의 02-3461-5558

골든듀

AHC 더 에스테 AHC는 에스테틱의 스키키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해 피부 본연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능성 스키키어 라인, '더 에스테'를 출시한다. 더 에스테 제품에 함유된 8가지 비타민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깊은 보습과 생기를 부여해준다. 문의 080-332-0855

에스티 로더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아이 밤 에스티 로더는 풍부한 영양감으로 눈가 피부를 더욱 여러 보기에 가꾸어주는 '리바이탈라이징 수프림+ 아이 밤'을 출시한다. 갓질감이 추출물이 함유된 포물리는 자연적인 피부 재생을 촉진하며, 항산화 성분의 순한 트라몰 나리신 콤플렉스는 비르는 즉시 눈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문의 02-3440-2772

시트러스 계열로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내추럴하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남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443-1805

조르지오 아르마니 캣 아이즈 컬렉션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당차고 자신감 있는 캣 우연의 모습을 표현한 캣 아이즈 컬렉션을 선보인다. '아이즈 투 킬 프로 라이너 01', '아이즈 투 킬 마스크라 WE1', '아이즈 톤' 등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된다. 특히 아이즈 투 킬 프로 라이너 01은 한 번의 터치로 쉽고 빠르게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주며 오랜 시간 동안 번짐 없이 완벽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준다. 문의 080-022-3332

데코르테 AQ 컬렉션 데코르테는 여성의 피부뿐 아니라 감성까지 섬세하게 어루만져주는 프리미엄 스키키어 라인 'AQ 컬렉션'을 선보인다. 자작나무 수액, 화이트무쿠나빈 추출물, 율화인민꽃 등을 함유해 효과가 탁월한 포물라와 하이 올레인 딜레이시 기술로 캡슐에 유효성분을 담아 더욱 효과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 문의 080-568-3111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스키키어 어드밴스 비타민 C+하일루론산 트리트먼트 아티스트리는 안티에이징 케어 작용을 하는 동시에 수분 탄력 에피딩을 선사하는 '인텐시브 스키키어 어드밴스 비타민 C+하일루론산 트리트먼트'를 출시한다. 더블 비타민 C와 더블 하일루론산이 결합된 혁신적인 포물라가 손상된 피부를 지켜주며 더욱 강력해진 이중 항산화 효과로 수분 가득한 피부로 가꿀 수 있다. 문의 1588-0080



아티스트리

존바비토스

시슬리

에스티 로더

조르지오 아르마니

데코르테

라트비아

볼리

파비아나 필리피

시몬스

BEAUTY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이세이 미야케



오브제



토즈



비오비오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보테가 베네타



이재멜리앙



멘디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해베 호보 백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는 럭셔리한 데일리 백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해베 호보 백'을 선보인다. 은은한 광택의 악어 가죽, 미니멀한 셰이프와 함께 슬더 스트랩과 사이드를 장식한 패튼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스피가 모티프를 담았다. 올 크로코 버전, 악어 가죽과 소가죽을 믹스한 믹스 버전으로 출시된다. 문의 02-516-9517

라트비아 아코디언 플리츠 프린팅 폼피도르 백 라트비아는 아코디언 플리츠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유니크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아코디언 플리츠 프린팅 폼피도르 백'을 출시했다. 천연 소가죽과 퍼를 활용해 디테일을 살렸으며,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추어 데일리 백으로 유용하다. 문의 02-3449-5977

볼리 자벨 스티드 발리는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성해줄 자벨 스티드를 출시했다. 비부스 스타일링 자벨 플랫은 볼드 실버 스티드와 1969년 발리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실버 스카어 자벨 버클이 함께 어우러진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트렌디하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의 슈즈로 스타일링한 한 데일리 슈즈로 제격이다. 문의 02-3467-8935

파비아나 필리피 캐시미어 니트 코트 파비아나 필리피는 최고급 소재와 편안한 디자인으로 기품 있는 스타일의 캐시미어 니트 코트를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와 폭스 퍼를 사용해 부드러운 소재감과 보온성을 갖춘 실용적인 아이템이며, 따뜻한 브라운 컬러 그레이딩으로 위트를 더했다. 문의 02-6960-0831

비오비오 멘디 비오비오는 기존 플랫폼 비오비오 토트 스타일에서 진화한 버킷 백 스타일의 멘디 백을 새롭게 소개한다. 매트한 파니의 라이트 핑크 컬러와 라이트 그레이, 블랙 등 3가지 컬러와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된다. 문의 02-2231-6282

파비아나 필리피 캐시미어 니트 코트 파비아나 필리피는 최고급 소재와 편안한 디자인으로 기품 있는 스타일의 캐시미어 니트 코트를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와 폭스 퍼를 사용해 부드러운 소재감과 보온성을 갖춘 실용적인 아이템이며, 따뜻한 브라운 컬러 그레이딩으로 위트를 더했다. 문의 02-6960-0831

이세이 미야케 2017 F/W 컬렉션 이세이 미야케는 패브릭의 연속성이라는 특수 소재와 패브릭 가공법으로 아름다운 플리츠를 구현한 2017 F/W 컬렉션을 소개한다. 패브릭에 특수한 글루를 프린트하고 열을 가해 주름을 만든 베이컨 스트레처와 스팀 세레지 기법을 메인으로 사용했으며, 오로라와 같은 반짝임이 특징인 색을 레이아웃한 것이 특징. 문의 02-2231-6282

오브제 2017 F/W 광고 캠페인 오브제는 패미닌한 감성을 바탕으로 고급스러운 품격과 트렌드를 담은, 2017 F/W 광고 캠페인 '에브리데이 꾸뛰르'를 공개한다. 여성의 다양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꾸뛰르를 담은 이 캠페인은 햇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통한 시간의 흐름과 뉴욕이라는 도시의 오브제를 활용해 여성의 일상적이고 다양한 감성을 표현했다. 문의 02-6410-2145

토즈 셀라 백 토즈는 럭셔리한 무드와 실용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아이코닉 셀라 백을 선보인다. 백을 구성한 레더 커팅 조각이 그려내는 유려한 곡선 스타일링과 견고한 형태가 특징이며, 사이트에 '가시' 디테일을 더해 실용성을 높였다. 3가지 사이즈와 다양한 컬러로 선보이는 셀라 백에 주목해보자. 문의 02-3438-6008

이재멜리앙 F/W 클래식 페미닌 룩 이재멜리앙은 클래식 페미닌 룩을 완성해줄 '파자 재킷', '저렴 팬츠', '블리나나 슈즈'를 선보인다. 시크한 감성을 담은 파니아

재킷은 F/W 시즌 트렌드인 체크 패턴과 짧은 기장으로 고급스러운 멋을 자랑한다. 여가계 슬림 핏 스트라이프 패턴 저림 팬츠와 글리터링 디테일의 블리나나 슈즈를 매치하면 시선을 사로잡는 클래식 페미닌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문의 02-516-3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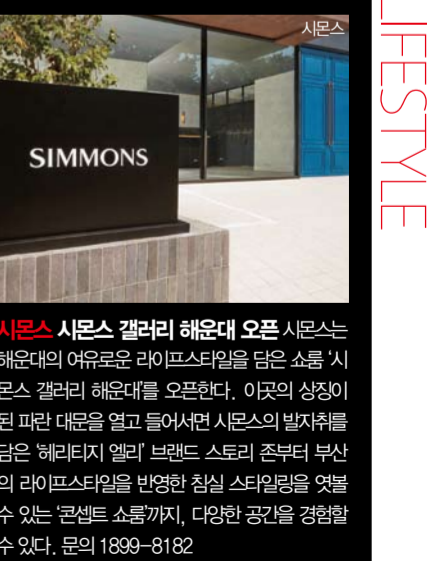
파비아나 필리피 캐시미어 니트 코트 파비아나 필리피는 최고급 소재와 편안한 디자인으로 기품 있는 스타일의 캐시미어 니트 코트를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와 폭스 퍼를 사용해 부드러운 소재감과 보온성을 갖춘 실용적인 아이템이며, 따뜻한 브라운 컬러 그레이딩으로 위트를 더했다. 문의 02-6960-0831

멘디 트리플렛 멘디는 3개의 피우치가 모여 하나의 세련된 기쁨을 완성하는 '트리플렛'을 출시했다. 멘디의 창조 정신과 화려하면서도 유쾌한 감성이 살아있는 트리플렛은 색상, 소재, 디테일에 따라 몇 가지 버전으로 소개하며, 3개의 피우치를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을 갖춘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문의 02-726-4500

브리오니 포일 레더 부츠 브리오니는 F/W 시즌을 맞아 부드러운 촉감이 살아있는 '포일 레더 부츠'를 선보인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숭이 자갈에 블랙과 블루를 메인 컬러로 채택해 시크한 남성의 매력을 더해준다. 시크하면서도 깔끔한 멋을 추구하는 남성에게 제격일 듯. 문의 02-3274-6483

FASHION

LIFESTYLE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

시몬스